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5호 【루계 제25784호】 주체106(2017)년 10월 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대혁신의 열풍을 일으켜 원쑤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자

반미대결전에 총궐기시키는 사상전의 포성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쑤, 악의 제국을 이 행성에서 초토화해버리려는 천만군민의 의지가 하늘에 닿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산하당조직들에서 허장성세하며 꼼수없이 날뛰는 로와무도한 미국놈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려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침입식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한편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일군들을 중요부문, 중요단위들에 파견하여 적들의 로악한 제재책동을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예술인들과 직외강연강사들이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새로운 기적의 창조자가 되도록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에도 130여명의 강연강사들로 조직된 40여개의 집중강연선전대가 도안의 120여개 공장, 기업소들과 240여개 협동농장들에 나가 500여차에 걸쳐 수십만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상승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한 내용으로 강연선전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리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시, 군의 출근길선동대원들도 다양하고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의 당조직들과 련합기업소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쑤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불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수령보위, 혁명보위성전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의 포성을 일제히 드세차게 울려나가고있다.

청진시당위원회에서는 시당선전일군들로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천겹만겹의 성새, 방탄벽이 되여 절사옹위하며 당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한 내용의 합창시와 남성기타병창, 북제창 등 여러 종목의 선동대본을 완성하였으며 선동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도당위원회는 청진시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를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일군들앞에 내세워 정치선전, 경제선동활동보여주기를 조직하였다. 청진시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는 시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 이어 그들은 청진페스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급기관의 예술인, 작가, 강사, 방송원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경제선동대를 조직한데 이어 그들이 해당 단위 당조직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경제선동활동을 드세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과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일군들이 산소열법용광로전설로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전설자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고있다. 도안의 혁명사적일군들, 출판물보급원들, 미술가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여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김철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적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제재봉쇄를 불거품으로 만들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의지는 날로 더욱 역세여지고있다.

함경북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지는 사상공세의 우렁찬 포성은 당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자력갱생대진군의 힘찬 박차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9월 전력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릴 의지를 안고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날에날마다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9월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리청복, 석두홍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초강도제재책동을 자랑찬 전력증산성과로 짓부셔버리자고 하면서 자력갱생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련계밑에 발전기와 타빈의 진동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모든 호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진동수가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제때에 바로잡을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보이라의 승수관구조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보이라의 상태를 개선하여 종전보다 연소효률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발전기에 의한 고압전동기연기동방법을 착상하고 실천에 구현한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누구나 기술혁신의 명수가 되도록 하는데도 모를 박았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생산활동에 응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열생산직장에서는 열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대보수중에 있는 호기에도 기술혁신안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증산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석탄분쇄설비에서 미분탄류실원인을 찾아낸데 이어 출구도관구조를 개조하는 전투를 벌려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생산자들모두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결과 발전소적으로 수많은 창의고안들이 쏟아져나와 전력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땟땟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드세찬 총공격전으로 전력증산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질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리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중소형발전소들을 련이어 건설

우시군에서

우시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중소형발전소들을 련이어 건설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우시1호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시2호발전소를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청년들로 발전소건설돌격대를 꾸려준데 이어 기계설비들과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박인호,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뜨거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수천㎥의 토량을 날라다 쌓으면서 가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송만강의 흐름을 멈춰세움으로써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휘틀조립과 철근가공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언제콩크리트치기와 사석언제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긍발을 심장에 안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중심강토작업을 비롯한 언제공사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혼합물다짐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발전설비조립을 맡은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압력관로와 입구변, 안내날개, 작업날개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맞게 발전기설치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만리마대고조진군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성과들

세멘트수화열자동측정체계 개발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자들과 보건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무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직접법에 의한 다통로세멘트수화열자동측정체계를 개발한것은 건축물들의 안전성을 담보하여주고 세멘트와 콩크리트생산의 과학화수준을 한층단 더 높여 질좋은 세멘트를 대량생산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의의가 큰 성과이다.

건축재료학부 건재실험분석실의 과학자들은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 질좋은 세멘트를 보장하여주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인 직접법에 의한 세멘트수화열측정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들에게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도,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다. 선행문헌자료에 밝혀진 표준자료값들과 동작원리만 가지고 장치설계와 제작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실장 한철순, 연구사 김룡복동무들은 국가과학원 규산염공학연구소 연구사 김춘선동무와 함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첨단과학기술성과로 통쾌하게 짓부셔버릴 담대한 배짱을 안고 창조적인 사색과 비상한 탐구로 연구사업의 낮과 밤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평양건축종합대학 당조직의 사심없는 방조와 과학자들의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쟁은 믿음직하고 결합한 성능이 좋은 세멘트자동수화열측정기의 제작이라는 훌륭한 결실로 이어졌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자들은 직접법에 의한 세멘트수화열측정을 프로그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해석체계개발전투를 벌려나갔다.

모든 프로그람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과제였다. 실장 로현철, 학생 독고준동무들은 자신들을 높은 실력을 지닌 프로그람개발자들로 키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첨단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해석체계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람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하여 기성의 수학적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었던 세멘트와 콩크리트의 세기장성과정을 지능공학적수법을 리용하여 짧은 시간에 예측할수 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해석체계를 개발하게 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이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건재실험분석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현장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직접법에 의한 다통로세멘트수화열자동측정체계를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이 성과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만년대계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도입되여 질좋은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세멘트수화열자동측정체계는 3대혁명전시관 과학기술성과전람관에 전시되여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박현

생물공진진단치료기 개발

보건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보건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식의 생물공진진단치료기를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수자식기술과 의료설비정밀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물공진기술은 발전된 몇개 나라들에서만 독점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 식의 생물공진기술이 확립되고 생물공진진단치료기가 개발된것은 보건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하는 과정에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생물공진진단치료기를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의학연구원 의료기구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과학자, 기술자들을 망라하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지난해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생물공진진단치료기개발에 달라붙은 연구집단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시제품을 내놓을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초보적인 설계도 없고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지만 돌격대원들은 1만여건의 문헌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여 진단치료기개발방도를 탐구하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개발을 끝내기 위하여 의료설비총설계와 종합기판의 설계조립 및 조종을 동시에 내밀었으며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장치제작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다.

의학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은 비상히 앙양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충분발휘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었다. 보건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그에 맞게 조건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웠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생물공진기술이 확립되고 치료기시제품제작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남들은 몇십년이 걸렸다는 의료설비개발을 두달 남짓한 기간에 완성한 기적에 토대하여 이들은 진단치료기를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게 우리 식의 붉은별조작체계에 따르는 첨단의료설비로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를 또다시 벌리였다.

연구집단이 완성한 우리 식의 생물공진진단치료기는 파괴된 유기체의 정락체통을 바로잡고 유기체의 병적미크로권자기파정보를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나라 환자의 몸상태를 조절하고 유기체자체의 면역능력과 자체치유능력을 높여주어 병을 치료할수 있게 한다.

여러 중앙병원들에서는 충분한 림상검토과정을 통하여 우리 식의 생물공진진단치료기가 여러가지 알레르기성질병, 난치성피부병진단치료에 효과적일뿐만아니라 객관적인 치료효과판정에 의의가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본사기자 김옥별

자동차수송선을 새로 무었다

륙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신심드높이 륙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320t급자동차수송선을 새로 무어 대동강에 띄우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차수송선이 무어짐으로써 서해갑문으로 배가 통과하는 시간에도 제한없이 각종 륜전기재들의 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종전보다 운행거리가 짧아져 많은 연유를 절약하는것은 물론 수송시간이 단축되여 교통운수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하천을 리용하여 운수를 발전시키면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나라의 교통운수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안고 륙해운성 책임일군들은 강하천운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하였다.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국장 김용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각종 륜전기재들의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실리있는 자동차수송선을 무어 리용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짧은 기간에 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적극 따라세웠다.

현지에 파견된 처장 리승철동무는 남포항 항장 박준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지난 시기 자동차수송선을 만들어본 경험에 기초하여 320t급자동차수송선을 꿋는데 필요한 자재와 설비, 협동품보장을 적극 앞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기술자, 로동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320t급자동차수송선을 뜻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으로 모든것이 불리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줄기찬 전투를 벌리였다.

전투현장에서 김영수, 임운철동무를 비롯한 로동계급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세높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돌격전을 벌리면서 자력자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결과 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백십여일동안에 320t급자동차수송선을 훌륭히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320t급자동차수송선의 경제적효과성은 대단히 크다.

지난 시기 남포시와 서해갑문을 통과하여 황해남도로 운행하던 륜전기재들을 한번에 여러대씩 싣고 대동강을 오감으로써 륜전기재들의 운행거리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많은 연유를 절약하게 되였다.

륙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남포항의 로동계급이 무어낸 320t급자동차수송선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에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로 된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남포항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정영철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입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태양의 력사 영원하리

강용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승리의 명마루에서 당이여, 그대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 그대를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는 무엇이던가.

락월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조국은 제일강국이며 존엄높은 강국의 인민의 앞날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비길데 없는 긍지와 환희의 송가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여!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 그대를 노래하여 수십성상 얼마나 심장의 피를 끓이였고 그대를 위하여 더운 피 아낌없이 바쳐왔던가.

당을 따르는 길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백두의 칼바람이 천만의 가슴에서 휘몰아치게 하고 천만산악 넘고넘어 수놓아온 승리의 천만리가 과도체 실려오는 10월.

20년전 10월 8일,

우리 당의 혁명적경사의 날, 휘황한 천만년앞날을 약속한 이날과 잇닿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 ※

락월한 수령이 이룩한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기마련이다.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으로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세계앞에 엄숙히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어느덧 20년이다. 하지만 어제런듯 선하다.

력사가 바야흐로 새 세기에로 넘어가는 분수령에서 장엄하게 울려퍼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 전당, 전군, 전민의 간절한 열망, 진보적인류의 념원이 실현된 장쾌한 포성이였다.

첫 도당대표회가 진행된 격동적인 그날로부터 온 나라는 말그대로 환희에 끓고 경축분위기에 휩싸였다.

천어만어와 자식과 같이 혈연적인 관계인 수령과 인민,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 가장 진실하고 숭고한 륜리도덕적관계에 의한 당총비서 추대!

지심깊이에서 끓어번지는 용암이 분화구를 찾아 분출하듯 응축되였던 인민의 열망,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 진보적인류의 소망이 터쳐진 시대와 력사의 장엄한 화폭이였다.

30여성상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세기적인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칭송의 분출,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는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

로동계급의 정당사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독특한 당수반추대방식과 절차에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과 위력을 절감하면서 온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더욱 경탄을 금치 못하지 않았던가.

추대기간에만도 세계 50여개의 나라, 1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200여회에 걸쳐 련일 특집보도하였다.

사람들이여, 우리 잠시 20년전 10월, 온 우주에 메아리치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되새겨보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과 열화같은 충성의 일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모든 대표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할 결의들을 일치하게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의 의사에 따라 30여성상의 오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이 땅에 김일성민족의 통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세계정치계가 죽가마끓듯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온 세상에 널리 시위되였다. 대단히 기쁜 소식, 기다리고기다리던 중대소식이다.》

《혁명의 대성인이신 김정일동지의 추대는 세계정치사에 기록될 위대한 사변이다.》…

세계언론계도 벅적 들끓었다.

력사의 새시대는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ㄷ, ㄷ》로부터 고고성을 울린 조선혁명이 90여성상이라는 장구한 년륜을 아로새기며 승리의 상상봉에 거연히 선 력사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당령도사, 그 거창한 수십성상이 력력히 금이쳐흐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교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광휘롭게 수놓아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당령도사를 그렇듯 찬연히 빛내여오신 로숙한 정치원로!

천재적인 사상리론으로 인류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비상한 정력으로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력사의 그 길에서 그 어느 정치가도 이룩할수 없는 세계사적인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전대미문의 고난의 시기 혁명가는 관직은 어떻든 혁명만 하면 그만이다, 수령의 전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면 그만이다는 한없이 고결한 인품으로 혁명적인생관의 귀감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위대한 인간!

이런 위대한 령도자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였다.

령도자를 잘못 만나면 강대하던 나라도 쇠퇴몰락하게 되고 탁월한 령도자를 만나면 약소국도 강국으로 된다는것이 력사의 법칙이다.

일부 나라들이 령도자를 잘못 만난탓에 당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당과 국가활동에서 온갖 비행이 성행하다보니 당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여 결국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지 않았던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홍대중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실천에서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신 로련한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며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이 시각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정치적신조는 철두철미 조선로동당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필승의 해불이며 혁명가들의 유일한 무기인 위대한 김일성주의였다.

그이는 위대한 천재성, 걸출한 영명성, 비상한 령도력으로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그 길에서 류례없는 업적을 이룩하신 전설적위인, 세련된 정치가이시다.

력사의 그 나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천만의 심장에서 뜨겁게 울린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

이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당을 김일성주의로 맥박치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사고하고 활력에 넘친 전투적당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에로 향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령도적권위를 비상히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김일성동지의 당의 창창한 운명, 민족의 만년대계가 결정되고 그이의 사상과 신념, 실력과 탁력,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닮고 체질화해온 나날에 우리 당은 그처럼 억세고도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것 아니던가.

위대한 선군령도, 이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빛내이시며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하고 불멸할 공적이다.

천리방선을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하신 위상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기가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고 장엄히 흐르는 김일성동지의 당의 력사를 가슴벅차게 체험하지 않았던가.

선군혁명의 열풍이 거세차게 불어친 이 나라의 초소들에서 울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선언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창공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에 력력히 빛발쳤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우리의 홍대우에 정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인민군대가 강해야지 군대가 약하면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는것은 물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 있다.

홍대혁명의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속에서 혁명을 알게 되시였고 그리움속에 불타는 심장으로 수령님의 홍대중사상에 한몸바칠 각오를 만장약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는 여기에 어느해 2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피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정히 적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왔다고 하시면서 무력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부르시며 그들이야말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참된 충신들이라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리였다.

나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시작한 첫 시기부터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왔으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나의 혁명령도사는 선군혁명령도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힘이고 힘은 곧 총대입니다.

아무리 당을 건설하고 정권을 세웠다고 하여도 군대를 강화하지 못하면 그것을 유지할수 없다는데 대한 철석의 신념이였다.

그처럼 처절하였던 반미대결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력사의 행정에서 수령의 사상으로 탄생하고 수령의 사상으로 뭉치고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는 정치조직인 당, 이는 곧 수령이고 수령은 곧 당이라는 혁명사의 정의를 확증하신 불세출의 정치가, 비범한 정치실력의 거장!

참으로 장장 수십성상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리라.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당령도사!

그 영광스러운 행로를 뜨거운 심장으로 더듬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뇌리에 어찌하여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드는것인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 어머니당에 의하여 항도될 때 그 승리는 필연적이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다.

위대한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께서 즐겨 외우신 말이 있다.

당을 어머니품이라고 부르는것처럼 좋은 말이 없다. 이 말에는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온 우리 인민의 남다른 인생체험과 당과 함께 영원히 승리해나가려는 신념이 담겨져있다.

장장 수십성상 야전복에 이 나라 천만자식을 감싸안으시고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바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

찬란한 페일을 부르는 시대의 기상인양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펄럭이는 당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천만군민은 슬하의 자식들을 지키고 댓댓이 내세워주느라 상상할수 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읽으며 얼마나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머금었던가.

력사에는 당도 많았고 또 무수한 당들과 함께 위인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당의 력사에도, 어느 시대에도 우리 장군님처럼 수십성상의 당령도사를 그처럼 위대하게, 그처럼 광휘롭게 빛내이신 위대한 정치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령도사, 이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의 존엄과 승리, 영광이며 무궁번영할 미래이다.

위대하고 긍지높은 력사를 가진 혁명과 인민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

그 무한한 자부심으로 피를 끓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장 수십성상의 당령도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영원무궁한 경의를 삼가 드린다.

그리고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영원한 일편단심으로 천추만대 길이 빛날 우리 장군님의 당령도사, 억만금보다 귀중한 그 갈피갈피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당령도사는 오늘 열화같은 충정의 화신, 천하제일강자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욱 장엄하게 흐른다.

온 나라를, 온 세계를 격동시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충정의 세계를 우리 다같이 체험하지 않았던가.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

탁월한 령도로 천만년 드놀지 않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천백배로 떨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인민은 확신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끝없이 안아오실 경이적인 사변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백승에로 이끄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당령도사는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천년만년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주체91(2002)년 11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위대한 백두령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담긴 력사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신념과 배짱,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치렬한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은것 아니던가.

천하대적을 단숨에 휘어잡을 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천출명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들은 너무도 모른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못된것을 다 끌라하다 못해 이제는 《정권교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 공화국인구를 전멸시키겠다는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며 설쳐대는 트럼프패거리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바로 미제를 두고 하는 말인듯싶다.

승냥이의 본성을 타고나 피와 불을 즐기는 미제와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만 결판을 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보복일념으로 만장약된 무적의 총대가 서리발친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쏭박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서 우리의 총대맛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남강도무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토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강연회, 해설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인민의 기쁨에서 보람을 찾으시며

끝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수많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말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였다.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공장이라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새부가 마련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감회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친히 메기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공장터전도 잡아주신분,

어느해 설명절에는 메기공장건설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필요한 자재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시고 뜻깊은 한생일에도 메기공장을 빨리 실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이 메기탕을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신분이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공장건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려도 기뻐하시며 《평양메기공장》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메기가 고스란히 수도시민들에게 가닿도록 친히 공급안까지 짜주신분,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을 떠나 오늘의 희한한 멋쟁이공장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메기공장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바로 한해전 12월의 나날에도 이곳을 찾으시여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며 앞으로 높은 메기생산실적으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우리모두 그날을 앞당겨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러시고도 이렇게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랭동고마다에 산같이 쌓여있는 랭동메기를 보시고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는듯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니 어찌 일군들의 가슴이 세차게 끓어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그날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곳을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만점짜리인 평양메기공장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용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자욕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하신 그이를 격정에 넘쳐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절세위인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해나갈 행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철천지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씨종자도 없이 말끔히 쓸어버릴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펄펄 끓이고있다.

남강도 미제가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과괴》라는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며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반드시 불로 다스리고 그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성한 조국땅을 건드리려는 그 어떤 침략자도 용서치 않고 끝까지 싸워 결판을 보고야말리라는 투쟁정신을 지닌 위대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안겨온다.

지난 9월초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 …

핵무력강화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그 길은 진정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무한한 헌신의 길이였다.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에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협천만한 시험현장에까지 나오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시고 숨결을 함께 하시며 대성공에로 이끌어주신적은 그 몇번이던가.

정녕 잊을수 없다.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들과 일군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최강의 핵탄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이며 온 나라가 떠받들고 자랑해야 할 숨은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모두가 뜨겁게 절감한것은 한평생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였다.

그렇다.

또 한분의 선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는것 아니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절사옹위하여 하늘과 땅, 바다를 성벽처럼 지켜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지금 트럼프와 그 졸개무리들을 단숨에 족탕처버릴 멸적의 시각을 분분초초 기다리고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식의 타격전이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승냥이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를 안겨야 한다.

이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소탕전, 섬멸전의 진맛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하지 않는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자각안고 가을걷이전투를 다그친다

기계화비중을 높여 열어놓은 돌파구

재령군일군들의 사업에서

10월의 하늘가에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사회주의전야의 참된 주인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중에는 재령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경제강국건설목표를 단계별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재령군일군들이 당정책을 자로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고있는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군일군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올해의 벼가을을 계획대로 내밀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에서 봄내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숱한 낟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유훈을 뼈에 새긴 군일군들이 농사결속전투의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작전하고 내밀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군에서는 올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벼가을을 결속할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 영농작업이 겹치는것이 문제였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결방도는 무엇인가. 사색을 심화시키던 군일군들은 시기성보장의 열쇠가 로력문제에 귀착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벼가을과 겹치는 가을밀보리씨뿌리기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원래 밀보리씨뿌리기는 한 사람이 하루에 300평정도밖에 하지 못하였다. 결국 적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한 면적에 대한 밀보리씨뿌리기를 와닥닥 해치우자면 군안의 거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만큼 벼가을을 중단해야 하였다. 심중한 문제였다.

아무리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어도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면 사업전반을 추켜세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다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로력소비가 많은 밀보리씨뿌리기방법을 혁신하는데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 시기 군안의 어느 한 농장의 밀보리씨뿌리기경험에 주의가 집중되였다. 그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밀보리씨뿌리기와 복토작업을 동시에 하는 농기계를 만들어 리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이런 경우 1대가 하루에 여러 정보의 면적에 대한 밀보리씨뿌리기와 복토작업을 할수 있었다. 대당 필요한 로력도 몇명이면 충분하였다. 결국 이 농기계를 리용하면 밀보리씨뿌리기에 들던 숱한 로력을 벼가을걷이에 돌릴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을 통하여 군일군들은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게 되였다.

대담한 목표가 세워졌다. 군안의 농장들에서 이 농기계를 만들어 밀보리씨뿌리기에 리용하도록 하자는것이였다.

물론 부족한것도 많았다. 그러나 군일군들은 대중속에 우리에게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강력이 제일 큰 힘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다. 이와 함께 이 농기계제작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총화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결국 많은 농장들에서 이 농기계를 갖추어놓게 되였으며 벼가을걷이를 중단없이 내밀면서 밀보리씨뿌리기도 적기에 끝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실천한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군적인 낟알털기능력을 훨씬 높인데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이동식탈곡기를 수리정비하거나 수백대의 소형탈곡기를 더 만들어 리용하는것만으로는 군에서 높이 세운 목표를 수행할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이동식탈곡기대수를 늘여야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늘일것인가. 물론 다른데서 구해올수도 있었다. 그러나 군일군들은 손쉽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긴 군일군들은 군자체의 힘으로 이동식탈곡기를 더 만들기로 하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이 사업을 단순히 낟알털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이라는 립장에서 밀고나간것이다.

원래 군일군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고려하여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동식탈곡기대수를 적당히 정하였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오늘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는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장벽에 돌구멍을 내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데 무엇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여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을 벌려서야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후 계획했던것보다 더 많은 이동식탈곡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헐치 않았다.

그러나 군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앞장에서 부족한 철판과 축소제 등 자재해결을 적극 말아나섰다. 이것은 이동식탈곡기제작전투에 떨쳐나선 군농기구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고무로 되였다.

자력갱생하는것, 바로 이것이 당의 의도이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투쟁을 벌린 결과 군에서는 다른데서 이동식탈곡기를 구입할 때보다 훨씬 적은 원가를 들이고도 낟알털기능력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대의 벼종합수확기를 새로 마련하고 벼단운반에 리용할 백수십마리의 부림소를 더 확보한것을 비롯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사업에서 군이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않다.

이 성과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쌀톨로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할 드높은 열의밑에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실천한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포전별로 적기를 따져가며

어랑군에서

어랑군의 협동벌들이 우리 공화국을 절멸시키려고 광분하는 미국 불망나니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열기로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악의 제국 미제와의 결사항전에서 자주적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려는 이곳 농업무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의로 하여 지금 군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속도를 부쩍 높여가는 속에서도 이곳 일군들이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는 문제가 있다.

포전별적기선정을 바로하여 하나같이 땅땅 여문 낟알을 거두어들이도록 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예상수확고보다 실수확고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군 하였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지 못한데 있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군에서는 최근년간 변화되는 기후조건에 맞게 생육적산온도가 높은 다수확품종을 적지 않은 면적에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가을걷이적기를 품종별로 따져가며 과학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내밀다나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가을걷이적기선정에 알곡증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김철호, 로일천동무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은 올해 과학적인 가을걷이적기선정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특히 올해 생육적산온도가 높은 다수확품종을 더 많은 면적에 받아들인데 맞게 여기에 특별히 깊은 주의를 돌리며 예견성있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에서는 우선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적기선정을 바로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벼수확을 지나치게 일찍 하면 낟알이 채 여물지 못하여 여문물과 천알질량이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하면 이삭목이 부러지고 날짐승과 들짐승의 피해를 받아 낟알희실이 많아지게 된다는것을 또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적기선정방법들도 가르쳐주었다.

다음날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이 직접 모든 농장기술일군들을 이끌고 군안의 포전들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다수확경험과 함께 구체적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적기선정방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품종별로 모낸 시기, 이삭팬 날자, 생육적산온도를 정확히 따져보고 포전별농사조건과 비배관리수준까지 고려하여 이삭이 여무는족족 거두어들이는 일정계획을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이것이 온을 내고있다.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일군들은 포전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낟알이 익는족족 가을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이미 뜨락또르, 탈구지, 중소농기구수리정비와 부림소영양관리를 비롯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낼수 있는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맞게 벼가 익는족족 기세좋게 베여들이고 있다.

홍알처럼 땅땅 여문 낟알을 제때에 거두어들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무자비한 보복열기로 들끓는 협동벌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이려면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단숨에 짓밟아버릴 멸적의 기상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들은 지금 우리 인민을 완전히 질멸시키겠다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 미국의 늙다리가 보란듯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누구나 떳떳이 들어설 각오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농장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올해의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끼는것과 함께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10일이상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반별 벼가을걷이준비정형을 료해하면 관리위원장 김득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당에서는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올해 가을걷이전투의 중심고리를 뜨락또르를 비롯한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이런 절심밑에 그들은 우선 뜨락또르들의 벼단운반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작전을 예견성있게 조직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를 위하여 일군들은 지난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때 작업반들에서의 벼단운반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몇가지 문제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뜨락또르적재함의 량옆과 뒤의 문들을 열고 넓은 나무틀을 놓은 상태에서 벼단을 쌓도록 한것이였다. 이와 함께 포전도로조건이 좋은 작업반들에서 한대의 뜨락또르가 2대의 련결차들을 끌도록 하여 벼단운반량을 늘인것이였다.

결국 뜨락또르 대당 운반량을 그전보다 더 늘여 벼단운반속도를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벼단운반량을 늘일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일군들은 이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조직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가 가을걷이전투에서도 응당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일군들은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뜨락또르의 련결차들과 탈구지들마다 벼단을 최대한 많이 실을수 있는 여러가지 크기의 나무틀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 운반수단들의 대수도 지난해보다 더 늘이였다. 결과 뜨락또르의 대당 벼단운반량은 지난 시기보다 1.3배정도 늘어나 벼단운반속도가 높아진것은 물론 숱한 연유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언제나 자기 단위의 현실적조건에 맞춰 붙이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찾아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 농장일군들의 사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정황에 맞게 따라세운 이삭운반조직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각오를 안고 당면한 가을걷이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농장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가을걷이와 관련한 전투조직을 변화되는 정황에 따라 기동적으로 해나갔다.

농장의 제한된 뜨락또르들을 합리적으로 기동성있게 배치하여 로력랑비와 낟알희실현상을 극복하면서도 가을걷이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농장에는 제4작업반과 같이 앞알고 해당 작업반에 배속된 뜨락또르가 집중수송이 제기되여 다른 뭇으로 기동하는 경우 소달구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각 작업반들에서는 비탈밭에서 이삭을 수확하는 경우 그것을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담아 기본도로까지 끌어내어 달구지들로 운반하였다. 결국 달구지의 대당 리용률도 시간을 다투며 높아지는 포전작업속도에 적극 따라세울수 있었다.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정황에 맞게 과학적인 운반조직을 제때에 따라세워 올해농사결속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진취적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일

마지막벼단을 털 때까지

안악군 신촌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마지막벼단까지 허실없이 말끔히 털어낼 열의밑에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농장일군들은 계획을 빈틈없이 세운데 맞게 탈곡장들에 수시로 나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시키를 놓치지 않고 벼가을을 진행하여 제때에 털기 위한데로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있다.

제7작업반에서는 이미 있던 탈곡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한데 맞게 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제4, 14작업반 초급일군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을 타산하여 탈곡장바닥을 잘 정리하고 씨우개들을 준비하여 비가 내려도 지장없이 작업을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제2, 11작업반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은 공구와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준비해놓고 포전도로들을 말아 잘 보수하여 벼단을 운반하고있다.

수리분조에서는 각종 탈곡기와 전동기들의 수리, 점검을 깐지게 하면서 사소한 고장도 제때에 바로잡고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농기계들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는 속에 실적은 시간이 감에 따라 부쩍 오르고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강동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강동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7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배인 박명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가증되는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짓부셔버릴 만만한 배심을 지니고 2년분계획수행에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장 한성도동무와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며 공장에 증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재단, 가공,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치차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생산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고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학습, 기술전습에 힘을 넣어 그들이 빠른 기간에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공장일군들은 기술준비실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멋있고 질좋은 옷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제품합평회를 실속있게 하여 여러가지 새 제품들이 창안도입되고 새로운 재단방법을 받아들여 재단실수률을 높이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 제품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작업반장들인 최춘옥, 김정희동무를 비롯한 재봉1, 2작업반의 작업반원들은 높아진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온 공장에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년간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한 종업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에 맞게 공장당조직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공장에서는 공무작업반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설비마다 만무하를 걸고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의 지도방조밑에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홍성준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김두한관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촬영

당적분공수행과 당조직의 위력

황북종합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초급당위원회 위원들의 체험을 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폭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강화하는데서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선차적인 문제이다.

초급당위원회성원들인 위원들이 최대의 마력을 내면서 맹활약하게 하자면 당적분공수행을 통해 잘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

황북종합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초급당위원회 위원들의 체험은 그에 대한 례증으로 된다.

앞선 자욱

지난해 8월 대학초급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여온 궁해영동무는 위원들에 대한 분공조직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당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아 집행하는것이 곧 당생활과정이라는 리유때문만이 아니였다. 위원들의 역할을 높여 초급당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자면 분공조직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보았던것이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이후 그는 여기에 더 큰 품을 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대학답게 모든 면에서 기발이 되여 내말리도록 하기 위한 방향에서 10여명의 위원들에게 매달 구체적이고도 무거운 분공을 주는 한편 자신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분공을 솔선 맡아안았다.

초급당위원장이 매달 분공안을 발표할 때마다 위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군 하였다.

학장 박송운동무는 말하였다.

《분공조직사업을 할 때마다 초급당위원장동무는 당일군들특히 자신을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세웠습니다. 비상한 책임감의 표현인 동시에 그자체가 위원들에게 내리는 힘찬 돌격구령이나 같았습니다.》

궁해영동무는 자신이 앞채를 메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위원으로 사업하는 당일군들 누구나 생눈길을 앞장서 걷도록 하였다.

분공조직계획서의 집행정형란에는 《집행》이라는 두 글자로 간단히 기록되군 하였지만 그 수행과정은 실로 큰 대가를 요구하였다.

한 위원은 사랑하는 딸의 수술림회를 서야 할 시각 초급당위원장이 눈물속에 자식에게 용서를 빌며 교사개건에서 제기된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여다닌 지난 3월의 일을 잊지 못해하였다.

분공수행과정에 결함을 범한 한 위원을 엄하게 책망하면서 동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잘 도와주지 못한 내 책임이 더 크다고 자책하던 사연도 위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었다.

자욱

그가 찍어간 앞선 자욱은 대학의 전반사업을 비약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응당한 역할을 하도록 위원들의 정신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킨 불씨로 되였다.

보람

초급당위원들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어떤 아름찬 분공도 어김없이 수행하는 기풍이 확립된것이다. 즉 분공수행에서 조건타발, 우는소리가 없어졌다.

초급당위원인 체육예능학부 부문당위원장은 말하였다.

《지금과 같은 단계에 올라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분공들이 아름차서 처음엔 아찔했댔습니다. 마치 큰 산을 마주한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넘었습니다. 뒤에서 밀어준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초급당위원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운수수단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을 때에는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제때에 해결해주어 전진속도를 드팀없이 보장하도록 하였다.

당적분공은 제기일에 수행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당결정에 토아박은대로 야외체육장이 번듯하게 꾸려져 대학은 령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더 훌륭히 갖추게 되였던것이다.

초급당위원으로 사업을 갓 시작한 조광식동무가 분공수행의 기본파넉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타까와하던 때였다. 초급당위원장은 그와 궁리를 함께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도를 찾겨주어 분공수행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였다.

위원들이 아름찬 분공을 매달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한 성과속에는 초급당위원장의 이런 헌신이 비껴있다.

힘은 들었어도 보람찬 분공수행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초급당위원들은 대학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자신들을 선거한 당원대중앞에 떳떳이 서게 되였다는 긍지를 가지게 되였다.

덧짐이야기

당적분공수행과정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싹들을 제때에 찾아 널리 일반화하는것은 궁해영동무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초급당위원으로서 분공수행과정을 통하여 학부의 면모를 일신시킨 력사학부 학부장 남영춘동무는 말하였다.

《분공수행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기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절감한 위원들속에서는 스스로 보다 어려운 분공을 맡아안는 기풍도 발휘되였습니다. 물론 초급당위원회는 그것을 제때에 일반화함으로써 긍정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습니다.》

분공수행에서의 긍정적인 모범을 통한 감화교양은 초급당위원들의 승벽심을 최대로 높여주었다.

부학장 리광철동무가 1호교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몫을 스스로 맡아안은것은 당적분공에 대한 초급당위원들의 드높은 열의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자신들의 어깨우에 당의 교육정책관철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덧짐을 지고 내달리는 위원들의 대렬이 늘어났다. 초급당위원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본받아 부문당, 당세포들에서도 당적분공수행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당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대학사업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수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고 대학의 면모도 안팎으로 새로와지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들의 체험은 초급당위원장들이 당적분공수행을 잘 이끌어나가는데 화력증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세차게 일어번지는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

체육열기로 들끓는 안악군에서

최근년간에 안악군이 무섭게 힘을 떨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군에서는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서는 영예를 떨치였으며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총돌격전에서도 기세를 올리고있다. 누구를 만나보아도 활기에 넘쳐있고 어디를 가보아도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넘친다. 그 비결을 여러가지로 찾아볼수 있지만 우리의 주목을 더욱 끄는것은 이 군에서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몇해전 당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이곳 군당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리제식동무는 군전반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군의 경기장건설을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알아보니 압만이 너무 굳어 도저히 일자리가 나지 못한다는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실무적문제로 보지 않았다.

당시 일부 농장들에서 농사작황이 좋지 못한 원인을 객관적요인에서 찾는 관리위원장들이 있었는데 책임일군은 문제는 그것을 전면에 내들고있는 해당 일군들의 패배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경기장건설이 지연되고있는것도 일군들이 당의 체육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결사의 각오밑에 그 관철투쟁에 나서지 못한 사상적문제로 보았다.

책임일군은 즉시에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방대한 일감을 안고있는 속에서도 여러 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능률높은 건설기계들도 마련해주며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군당책임일군의 기관차적역할은 건설장에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장마철에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그처럼 어렵다던 암반처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고 불과 30여일만에 경기장을 훌륭히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는 사상적각오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한 좋은 계기로 되였다.

군청년경기장이라는 체육활동의 거점이 마련되자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에로 더욱 고조시켜나갔다.

온 군이 떨쳐나선 가운데 군체육관이 멋들어지게 개건되고 이르는 곳마다에 로라스케트장이며 체육공원, 수영장, 축구장, 정구장, 바드민톤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군내근로자들과 주민들, 청소년학생들의 체육열의가 날로 높아졌다.

군에서는 해마다 체육월간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군급기관별, 공장, 기업소별, 협동농장별, 학교별경기들과 지구별녀맹원들의 경기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도 활발히 조직진행하였다.

그중에는 군안의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을 한편으로 하고 리당위원장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축구경기도 있었다.

경기가 진행될 때 군당위원장이 관리위원장림의 공격수로, 군당부위원장이 리당위원장림의 문지기로 맹활약하여 관중들의 눈길을 더욱 끌었다. 이런 특색있는 경기조직의 실효는 매우 컸다.

관리위원장, 리당위원장들이 체육의 감화력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류다른 축구경기로 하여 관리위원장들과 리당위원장들이 더욱 긴밀히 련계하면서 협조하는 좋은 사업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경기승리를 위해 함께 달리고 응원열기를 고조시키면 그 열정으로 관리위원장들이 앞선 농사방법을 적극 배우고 배워주는 이제로운 광경이 펼쳐졌고 또 리당위원장들속에서는 좋은 당사업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일어번졌던것이다.

이렇게 여러 체육경기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분발의 계기를 마련한 군당위원회에서는 매 단위들에서 진행되는 체육사업도 군의 특성에 맞게 조직되고 그것이 그대로 농업증산을 위한 대중의 정신력발동에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안악군 먹성협동농장을 놓고보자.

이곳 관리위원장 리광수동무는 지난해에 정보당 10t의 알곡을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짜고들면서 대중체육사업도 강하게 내밀었다. 농사를 잘하자고 해도 체육사업을 활기있게 내밀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온 농장에 통구바람, 배구바람을 일으켰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세차게 일으킨 대중체육열풍은 례년에 보기 드문 다수확경쟁열풍으로 이어졌으며 결과 이 농장은 알곡생산계획이 1만t이상인 협동농장들사이 2016년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1등을 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하였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리위원장 최영삼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대중의 열의를 높이고 집단의 면모를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고 체육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결과 올해의 태양절만 보아도 작업반별로 대오를 짓고 붉은기를 날리며 행진하면서 입장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 온 농장을 드세찬 대중체육열기로 들끓게 한 체육경기대회와 더불어 영광의 일터에 전투적기백이 더욱 차넘쳤다.

농장에서는 기계화작업반원들의 기술혁신성과가 주목을 끌고있는데 이것 역시 작업반에 차넘치는 체육열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누구나 체육을 생활화하니 혁명적열정이 끊임없이 샘솟아 기술혁신도 더욱 신심있게 내밀고있는 미더운 기계화초병들이다. 그 과정에 올해에는 기발한 착상으로 종전보다 트락또르의 기름소비를 훨씬 줄이면서도 작업능률은 거의 배로 높일수 있는 새형의 보습을 창안하고 단번성공시켜 지난 시기에 한달 걸리던 농장적인 논갈이를 단 열흘동안에 와닥닥 끝내는 놀라운 실적을 내였다.

이렇게 농장마다, 작업반마다 체육열기로 들끓고 그와 더불어 올해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한 투쟁기세 또한 드높은 안악군의 현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군적으로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군량정사업소에 가보면 이 교장의 체육열풍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다. 사업소에 새로 배치되는 종업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작업반장들은 의례히 이렇게 먼저 묻군 한다.

《동무는 어느 체육종목을 좋아합니까?》

자기 단위를 체육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힘있는 집단으로 만들려는것은 작업반장들의 하나와 같은 욕심인것이다.

그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작업반별대항경기는 보통 치렬하지 않다. 이뿐아니라 사업소에서는 여러 계기들에 작업반원들의 가족들도 참가시켜 체육경기를 더 의의있게 조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온 집단이 끓고 자기 일터에 대한 작업반원들의 애착이 더욱 뜨거워진다. 더 높아진 경쟁열의, 더 두터워진 대오의 단합, 더욱 백배해진 혁명적열정…

그러니 사업소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어찌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때문에 이곳 일군들은 아무리 방대한 일감이 제기되여도 언제나 체육사업을 놓치지 않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각급 교육기관들에 차넘치는 체육열의도 이곳 다수확군에 비약의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세차게 일어번지는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속에 군청소년체육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날로 강화되고 이곳 학생들의 혼련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결과 올해에 들어와 축구종목학생들이 도선발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하고 전국적인 경기에 참가하여 고향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군안의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도 날마다 과외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그런가하면 군학생소년회관에 현대적인 체육관을 일떠세우는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진척되고있어 학생소년들의 체육열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최근년간에 군안의 수천명 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가 펼쳐지고 각 부문 근로자들의 건강태권도, 대중률동체조를 비롯한 다양한 집체경기가 벌어져 온 군을 들썩들썩하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과 더불어 젊음으로 약동하는 이 고장의 벅찬 숨결을 뜨겁게 느낄수 있고 안악군이 다수확군의 위력을 떨치며 줄기차게 전진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렇다.

우리 당의 정책은 언제나 과학적이며 그 생활력은 무한대하다.

당의 체육정책을 틀어쥐고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의 성과를 확대해가며 날로 비약해가는 안악군처럼 각지 시, 군들이 드세찬 체육열기속에 기운차게 솟구칠 때 우리 조국의 자강력은 더욱 강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특파기자 박철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에서

첨단분야의 인재들을 더욱 박차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혁신자들의 대오속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있다.

절세위인들의 세계일류급대학건설구상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갈 일념으로 지금 온 통남산이 부글부글 끓고있는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에서도 첨단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우주항공기술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첨단분야, 중요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학부, 학과들을 창설하며 과학의 종합적발전추세와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들을 개척하고 그 부문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학부에서 내세운 뚜렷한 목표가 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앞으로 대학에 여러 단과대학들이 나오는 조건에서 새로운 학과를 내오고 첨단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을 전망적으로 키워내는것이였다.

그를 위하여 학부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우선 이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연구실과 강좌를 내오고 학과목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학부장 손남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따라 학부에서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여러 나라 대학들의 해당 부문 학과과정안과 교육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여러차례의 강좌토론회를 진행하고 연구와 토론을 심화시켜 이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세계발전추세를 반영한 교육과정안을 내오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력학과와 수제반과정안을 다시 따져보고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학과목을 통합정리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그리고 수십개 과목들에서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실현하고 교육내용의 심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교육의 질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는 튼튼한 담보도 마련하였다.

학부에서는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혁신적으로 달라붙었다.

교원 김광철동무는 이어달리기식설계경기를 착상하였는데 학생들의 학습능력, 탐구능력을 높여주는 교수방법으로 인정되고있으며 온 대학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교수방법을 보면 우선 해당 학급에 대한 강의시간에 교원이 여러 학습조들을 구성한 다음 하나의 설계과제를 놓고 먼저 학습조별로 설계공정을 토의하게 한다. 그다음 경기가 시작되면 학습조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골뜨리앞에 마주앉아 주어진 시간안에 설계하고 다음학생이 또 나와 차례로 설계를 완성하게 한다. 일정한 시간안에 학습조의 모든 학생들이 출연한 후 설계완성정도를 평가하여 학습조별로 점수를 주는 이 방법은 학생들이 주동적인 탐구자가 되게 하며 집단적인 경쟁분위기속에서 학습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뿐아니라 강좌장 김철혁동무가 전공기초과목에서 리론과 실험, 학과설계를 결합하여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는 교수형태를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창조한 새로운 교수방법과 교수형태들은 대학은 물론 교육부문 일군들속에서도 높이 평가되고있다. 이러한 것의 새로운 시험방법들도 도입되여 학생들의 학습열풍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학부에서는 이룩한 성과들을 력학부문을 위급하고있는 여러 대학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사리원시와 개성시안의 중요대학들에 학부교원들이 나가 강습도 조직하고 여러 과목들에 대한 교수요강, 강의안, 전자편집물들 등 교수자료들과 과학연구자료들을 넘겨주고 새 교수방법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이 단위 교육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새 교사에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벌려나가는 긍지와 영광을 안고 더욱 분발해나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투쟁열의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들은 대담하고 야심만만한 목표밑에 빠른 기간에 수십개의 실험장치들을 제작하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이신작칙해나가는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사업과 일본새가 안받침되여 학부는 우리 당의 뜻대로 첨단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류급학부에로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년로자들 국제로인의 날을 기쁨속에 맞이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인민적시책속에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이 국제로인의 날을 맞이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존경을 받고있는 년로자들은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며 이날을 즐겁게 보내였다.

평양시년로자들의 예술공연이 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수로동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비전향장기수부부들, 전쟁로병들, 공로자들, 년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독창 《인생의 영광》, 녀성독창 《어머니의 행복》, 남성3중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무용 《부채춤》, 가야금독주 《옹헤야》, 장새납독주 《그네뛰는 처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며 부강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온 년로자들을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고 로당익장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터치였다.

보람찬 생의 자욱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참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당의 은덕에 격정을 금치 못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오늘의 창성》,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선률이 울리는 속에 로인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공연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날로 커만 가는 년로자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가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날 수도의 유원지, 공원들에서는 년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보통강공원에서 열린 응원속에 진행된 보통강구역 년로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와 강반에서의 낚시질애호가경기가 이채롭게 펼쳐졌다.

북과 팽파리를 울리며 춤과 노래로 흥취를 돋구는 룡정도 불만하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맹싸처넣기와 타격, 살짝공 등 다양한 기술로 련속 점수를 올리는 년로자들의 배구경기모습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능숙한 솜씨로 연방 물고기를 낚아내고 장기, 윷놀이경기에서 승벽내기로 서로의 재주를 겨루는 로인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희열과 랑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옥류관, 청류관, 항만무대중식당, 개선청년공원 등 급양망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의 친절한 봉사는 년로자들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해주었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다해온 년로자들을 축하해주는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양로원들을 찾아가 보양생들에게 기념품들을 주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다.

또한 년로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벌어졌으며 로인들을 위한 예술공연과 급양망들, 편의봉사시설들에서의 특색있는 봉사가 있었다.

기계화초병으로 40년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기계화초병들속에는 금강군농기계작업소 가공작업반 반장 김손필동무도 있다.

19살의 청춘시절부터 환갑나이를 눈앞에 둔 오늘까지 기계화초병의 영예를 안고 40년!

이 수십년세월 그가 하루같이 기대앞에 서서 거꾸러진 농기계부속품은 얼마이며 고급기능공인 그의 손에서 고장을 퇴치하고 사회주의협동벌에 만가동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는 농기계들은 또 얼마이랴.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한생의 소중한 추억속에는 기술혁신조 조장으로 사업하면서 10여대의 설비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던 기쁨도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가 키워낸 수많은 기능공들이 맡은 초소에서 단단히 한몫하고있다는 남다른 긍지도 있다.

올해 가을걷이를 앞두고 진행된 능률높은 여러대의 이동식벼탈곡기제작을 위한 불꽃튀는 전투에서도 그는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갔다.

농촌기계화초병이라는 그 정다운 부름에서 제일 큰 긍지와 행복을 느끼군 하는 김손필동무는 오늘도 땀배인 작업복차림의 소박한 모습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무성해가는 담당림에 비낀 애국의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평성시 학수동지구에는 빌거승이나 다름없던 산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곳에도 세일소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종의 나무들이 한길나마 자라 숲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 성과속에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림조성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온 평성시검찰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자체의 힘으로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보장한 과정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당 단위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장 변재영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강심을 먹고 나무모생산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여 검찰소구내와 담당림구역에는 나무모밭이 생겨나게 되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애로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였다.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도 있었고 로력도 긴장하였다. 그럴수록 이곳 일군들은 선군령도의 길에서 나무가 없는 산들을 보시며 이것도 고난의 행군후과라고 하시면서 벌거숭이산들에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심장깊이 새기며 나무모생산을 이악하게 내밀었다. 또한 산림부문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과 필요한 지식들도 하나하나 배워가며 합격정표를 갖춘 나무모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다.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안고 산림조성사업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이곳 일군들은 품들여 키운 나무모들을 한그루한그루 정성다해 심어나갔다.

특히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한 당의 뜻을 뼈속깊이 새긴 이들은 사람들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그것이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자랄수 있는 과학기술적조건을 정확히 보장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자면 땅속물기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여야 한다는것, 따라서 나무심기를 언땅이 채 녹지 않은 해토무렵에 진행하면 얼마든지 높은 사람들을 보장할수 있다는 좋은 경험들도 쌓게 되였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은 나무심기에서의 사람들보장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이에 따라 구뎅이파기와 질좋은 유기질비료운반을 비롯한 나무심기준비사업이 언땅이 녹기 전에 결속되였다. 그리고 숲사이나무모밭에서 키운 나무모들을 뜨는족족 2일동안 집중적으로 심어 사람들이 국가기준을 훨씬 넘어설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그후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에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였다.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리춘삼, 박광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한주일에 2차이상 심은 나무들에 비료도 주고 물과 잡관목도 베어주며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당해가 아니라 사흘이 철저히 보장되였다고 평가될 때라야 거기에 명찰을 만들어 달아놓군 하였다.

특히 질좋은 유기질비료와 솔장집에서 마련한 영양제로 담당한 나무들의 영양상태를 품들여 개선해나간 소장 변재영동무의 남다른 이신작칙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이런 날들과 더불어 고난의 흔적이 력력했던 그 산에 오늘은 좋은 수종의 나무들이 든든히 뿌리를 내렸으며 가지마다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고 하나같이 잘 자라고있다.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담당림조성과 관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참으로 훌륭하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된 보건일군

‖ 동대원구역인민병원 의사 렴은희동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치료사업에 진실로 봄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분투하는 의료일군이라야 우리 당의 참된 보건전사, 인민조선의 진짜배기 의료일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금 환자치료를 마치고 나온 렴은희동무는 우리에게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것이였다.

렴은희동무의 아버지 렴병호동무는 한생을 군의로 복무한 보건일군이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렴은희동무가 신의주의학대학(당시)을 졸업하고 박사원에 다니던 나날에 아버지는 카온산소를 리용한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온 집안이 아버지의 성과를 놓고 기뻐하고있을 때 평범한 한 군의의 자그마한 수고를 길이 헤아려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렴병호동무의 치료사업성과자료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것을 널리 도입일반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맹세로 카습불태우던 렴은희동무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치료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식의 카온산소치료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쌍그리 쏟아부었다. 하기에 림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꼭 관철해야 한다는 절절한 부탁이였다.

그것은 렴은희동무가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한가정의 유산이였고 이 땅의 보건전사라면 누구나 해야 할 혁명임무, 광심의 과제였다.

아버지가 못다한 연구과제를 한생의 목표로 정한 렴은희동무는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카온산소와 고려약물을 리용하여 소화기계통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전심하였다.

사실 담도탈낭계통의 질병들은 병걸림률과 재발률이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치료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설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의료설비가 대단히 비싸고 치료후에는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것으로 하여 그 치료법은 일반화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카온산소를 리용하면 값비싼 수입설비나 수입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도 소화기계통질병들을 우리 식으로 안전하고 간단하게 치료할수 있었다.

환자치료로 드바쁜 속에서도 렴은희동무는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 나날에 《달걀 조종에 의한 소화기질병치료장치와 방법》, 《전자기파와 카온산소호과를 결합한 담석증치료장치》를 연구완성하고 치료기구를 제작도입하였으며 발명증서들과 새 기술등록증들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림상치료성과를 학술적으로 론증한 론문을 집필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2006년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카온산소치료장치를 더욱 발전시켜 연구완성한 종합치료장치를 리용하여 그는 지난 기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치료와 연구사업이 심화될수록 제일 절린것이 바로 산소보장이였다. 그 산소를 얻기 위해 렴은희동무는 궂은날, 마른날 가리지 않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그 나날 하루일을 끝내고 다음날 환자치료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 주저없이 밤길을 걸은적이 얼마인지 모른다.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자리를 차고 일어서군 하였다.

그러면 렴은희동무에게 뜻밖의 가슴뜨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이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새로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을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로동신문》을 펼쳐든 렴은희동무의 눈가에는 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하기에 올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의학박사학위를 수여받던 날 렴은희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저에게 이 박사메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렴은희동무가 연구한 카온산소치료법은 그 치료효과가 대단히 높고 치료방법이 안전한것으로 하여 의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우리의 산소와 우리의 약물을 가지고 소화기계통질병들을 치료하는 여기에 우리 식의 치료법인 카온산소치료법의 우월성과 의의가 있다.

지금도 매일 이른아침이면 동대원구역인민병원의 카온산소치료실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진행된다.

새벽 5시면 종주먹을 쥐고 병원으로 달려나와 오전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오후에는 밤늦게까지 다음날 치료준비를 하는것이 렴은희동무의 변함없는 하루일과이다.

렴은희동무는 늘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1년내내 하루도 빈지지 않고 매일 수십명의 환자들을 치료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느라니 명절날, 휴식날도 편히 앉아볼새 없었다. 늘 피곤에 눌려있으면서도 항상 밝은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환자들에게 면식도 마련해주며 정성을 다하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과 로동당시대의 보건일군의 참모습을 새겨안군 한다.

심한 아픔으로 신고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환자들이 병을 털고 웃으며 병원문을 나설 때면 렴은희동무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희열이 넘치군 한다.

우리는 렴은희동무에 대한 위재과정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백옥같은 충정과 불같은 헌신,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이 지녔던 그 사랑과 정성으로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여가고있는 이런 보건일군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인간,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애국자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늙다리깡패를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

미국은 참으로 어리석은 나라이며 그 괴수인 트럼프는 희세의 아둔함에 히스테리적기질까지 겸비한 인간폐물,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산송장이다. 미국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틈타 백악관을 타고앉은 이 무지무도한 늙다리깡패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도전하면서 《완전파괴》나발을 불어댔다. 하지만 트럼프는 심히 오산하였다.

조선의 뢰성벽력에 지구가 통째로 흔들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면서 감히 우리 민족을 멸살할 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미제호전광들에게 내린 과멸의 준엄한 선고장이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은 분노의 활화산을 한껏 터치고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절사옹위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멸적의 기상과 본때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천만군민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 없는 조선의 진모습이고 원쑤들은 백번 죽어도 리해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생리이며 당과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혁명적단결, 바로 이것이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우리의 최강의 힘입니다.》

력사적인 성명을 받들고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이 발표된 후 6일동안에 전국적으로 47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혁명의 수뇌부절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미래운 청년전위들이 그 앞장에 섰다.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렬들과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7.27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지를 보기 좋게 써줄 전투적기상이 천만의 심장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미친개무리를 반드시 불로 다스리고야말 강용한 인민의 보복의지가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에 총궐기해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 행성에 온갖 재앙을 몰아오는 악의 총본산인 미국을 초토화해버리고 최후승리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이로 하여 무시운 천벌을 면할길 없는 미국이 가련한 잔명의 분분초초를 고달프게 보내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저들의 머리우에 당장 불벼락이 쏟아질것만 같은 공포감으로 전률하고있다.

몇해전 남조선의 한 언론에 우리 민간무력의 위력에 대해 쓴 《열병식으로 본 북의 예비병력》이라는 글이 실린적이 있다.

글에서 필자는 10만명규모의 군단수십개를 구성할수 있고 휴대용반땅크로케트로부터 방사포까지 갖춘 우리의 로농적위군무력이야말로 유사시 인민군대와 함께 침공자들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모조리 격멸소탕할수 있는 막강한 예비무력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놓고볼 때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병력은 일시에 700만-800만명이상으로 확대될것인바 북이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독점한 미국을 상대할수 있는것은 핵과 미싸일을 가지고있음뿐아니라 이처럼 전사회가 군대 뭉치듯 철통같은 군사적대응태세를 갖추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상사람들이 격찬하듯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제국주의를 과멸시킬수 있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자주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하고있는 나라는 그 어떤 대국들이 아니라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이다.

다가오는 미국과의 최후결사전에서 우리 공화국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희망성세하며 륜수없이 날뛰는 포악무도한 미국놈들을 무자비하게 타스리시는 강철의 령장께서 제시여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륙풍쳐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떨쳐주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으며 제힘으로 개발하여 장비한 최강의 타격수단들과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주체적인 전법이 있다.

우리의 최후결전은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미국이야말로 통째로 쓸어버려도 아쉬울것이 없는 세계의 가장 더러운 시궁창, 완전파괴되고 절멸되여야 할 죄악의 소굴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세계최대의 화근덩이인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더이상 지구상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

모든 타격수단들이 격동상태에 있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온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만장약되여있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앞에 원쑤들이 살아남을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천만군민은 정의의 보복성전에 총궐기하였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준비해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일단 개시되면 가장 처절하고 몸서리치는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비명을 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미제국주의를 이 행성에서 영영 없애버릴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질것이다.

온 세계가 규탄하고있는 트럼프의 미친 망발에 대해 《북을 변화시킬수 있는 강력한 연설》이라고 추어올리다 못해 동족을 물어메치겠다고 날뛰는 승냥이에게 《갈수록 친근감을 느낀다.》고 삼삼개처럼 아양을 떨어댄 남조선괴뢰들도 저들의 역겨운 추태와 죄악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 천백배로 다지고다진 최강의 힘을 총폭발시켜 가증스러운 미제를 완전히 격멸소탕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미국의 충견, 더러운 전쟁사환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혼비백산한 괴뢰들이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괴뢰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유엔총회기간 꺽하면 《제재압의》의 완전한 리행으로 《북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정권의 진로를 수정》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악담을 내뱉았다. 이런 속에 미국행각을 마치고 돌아온 남조선집권자는 부랴부랴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라는것을 열고 《북의 고강도도발이 예상》된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추가도발억제방안》이라는것을 모의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한편 괴뢰들은 그 무슨 《련합방위태세강화》를 운운하며 미쎄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를 구걸하고 최신무장장비들의 구입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우리의 대미초강경립장과 관련한 남조선괴뢰들의 너절한 추태는 미국의 충견, 전쟁하수인의 정체와 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낸 반민족적범죄행위이며 상전인 늙다리깡패와 같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짓고드는 특대형도발이다.

괴뢰패당이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딱 들어찬 추악한 매국노, 미국상전의 장단에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는 주대없는 시라소니들이라는것은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동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웨쳐댄 트럼프의 미친 폭언을 로골적으로 두둔하다 못해 우리의 대미초강경립장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괴뢰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트럼프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내걸고 반공화국제재압박의 강도를 사상 최대로 높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고있는 정치외교적압박과 야만적인 경제제재, 군사적위협은 조미대결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암살책동이다. 바로 이런 정세하에서 트럼프가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절멸》이라는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것은 전쟁도발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다. 미제전쟁피수의 정신병적인 광태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몸서리치는 참화를 몰아오겠는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트럼프패거리들의 위험한 망동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괴뢰들은 보다싶이 전쟁미치광이들의 편에 서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추가도발억제》의 간판밑에 상전과 야합하여 군사적도발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들의 이런 비굴한 대미추종행위는 결국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후과밖에 빚어낼것이 없다.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무작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동족을 헐뜯는 천하의 역적들이 그 무슨 《대화》와 《남북관계개선》을 떠벌이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도전해나서는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우리는 미국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세계의 면전에서 감히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북침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국의 전쟁광태에게 내린 단호한 불벼락선언이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고 지랄발광하는 외세와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역적무리들을 추호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은 상상도 할수 없는 징벌의 불벼락을 뒤쓰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트럼프패거리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반드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괴뢰들로서는 비참한 종말을 면하려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편이 나을것이다.

은 정 철

감출수 없는 살인마들의 죄악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당시 항쟁용사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 진상을 숨기기 위해 시신들을 비밀리에 파묻어버린 전두환군사깡패들의 범죄만행자료들이 새롭게 드러나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 어느 한 보고서에는 괴뢰군공수특전대에 소속되여 광주인민봉기진압에 동원되였던 한 사병이 자기가 직접 봉기자들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자백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 5월 21일 그가 속한 부대는 화물차에 싣고온 봉기자들을 광주교도소창고에 집단적으로 가두어넣고 다음날 새벽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장교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근방앞 소나무숲에 매장하였다.

광주인민봉기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던자도 《계엄군이 며칠동안 군용차에 시신들을 싣고와 교도소의 여러곳에 몰래 매장하는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 장소로 교도소내의 세곳을 지목하였다. 당시 교도소에 갇혀있던 한 수감자는 사병들이 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동원하여 땅을 파고 봉기자들의 시신을 묻어버리였다고 증언하였다.

광주대학살만행에 참가하였던 괴뢰군공수특전대의 사병이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심도한 자료도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부대의 아수들은 1980년 5월 23일 달리고있는 소형버스에 사격을 가하여 10여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병은 그때 자기들이 소형버스에서 살아남은 부상자들을 사살한 후 주변마을 뒤산에 매장했다고 말하였다.

광주인민봉기당시 전두환일당이 감행한 치떨리는 만행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5.18기념재단은 행방불명된 봉기희생자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여 대학살범죄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할것이라고 선언하고 본격적인 조사발굴사업에 착수하였다. 단체는 당시 괴뢰군공수특전대의 주둔지였던 광주교도소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암매장지로 추측되는 여러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다.

이 단체는 이미 15년전부터 광주인민봉기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괴뢰보수패당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발굴사업에서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조선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은 광주인민봉기당시 저들이 저지른 살륙만행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봉기를 《종북세력들의 폭동》으로 몰아대며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전두환역도의 죄악을 비호두둔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발광이였다. 광주에서 사상 류례없는 대학살만행을 저지른 미국과 전두환일당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결코 꺾을수 없었다. 특히 괴뢰보수패당이 남긴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지금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있다.

광주의 봉기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괴뢰군부깡패들의 몸서리치는 살륙만행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는 속에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혀내고 살인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5.18력사의곡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하며 전두환역도가 민간인학살책임을 인정하고 력사와 민중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5.18진상규명 및 외곡근절 특별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청년단체도 서울에 있는 전두환역도의 집앞에서 극악한 살인마의 재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여기에서 발언자들은 전두환이 천추에 용납 못할 대학살만행을 지지르고도 사죄하고 용서를 빌 대신 《회상록》이라는데서 파렴치하게도 봉기자들에 대한 발포명령이나 무차별적인 살상은 없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까발리면서 역도를 당장 구속수사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역도뿐이 아니라 대학살에 가담한자들을 모두 징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력사의 진실은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는 법이다.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에 환장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덧쌓은 괴뢰역적무리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정신빠진 트럼프에게는 핵불소나기가 제일 맞는 처방이다

재중동포단체 대변인들 강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절멸》을 웨친 미국집권자의 유엔총회망발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성명을 적극 지지찬동하여 재중동포단체 대변인들이 9월 22일 각각 담화를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단호하고도 중대한 성명발표는 전세계를 뒤흔들고 악의 총본산인 미국에 돌린 멸망의 경종으로서 주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다고 찬탄하였다.

담화는 유엔총회에서 깡패두목 늙다리 트럼프가 《북을 완전파괴》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함부로 웨쳐대며 존엄높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놀래워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댄것을 보며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시였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최선이라는 백두령장의 위엄앞에 악의 축인 미국과 불망나니 트럼프의 내리막길의 운명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담화는 경고하였다.

담화는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이 양키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세계의 면전에서 통쾌하게 짓눌러버리신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성명을 심장깊이 새기고 날강도 미제의 침략전쟁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어깨걸고 미제와의 최후결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집권자의 유엔총회연설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완전파괴》를 지껄여댄 트럼프의 죄행에 대한 준엄한 선고라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세상에 그 아무리 불망나니로 소문난 폭군들도 체면을 차린다고 하는 유엔무대에서 감히 주권국가의 《절멸》에 대해 뻐젓이 웨쳐댈수 있겠는가고 규탄하고 이런 망녕든 늙다리를 대통령으로 떠받들고있는 미국이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조소하였다.

트럼프의 망언은 우리 공화국의 생존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과괴로 된다고 하면서 담화는 지금 온 세계가 트럼프의 망언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며 세상을 어느때없이 소란하게 만들고있는 트럼프야말로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쥔 최고통수권자로서도 무적격하며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고 규탄하였다.

담화는 정신빠진 트럼프에게는 핵불소나기가 제일 맞는 처방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유엔총회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것은 정상사람마저 사리와 분별, 침착성을 잃게 하는 미치광이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속담에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결심과 의도대로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몽둥이로 다스려 트럼프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미국과 괴뢰당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규탄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진보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등 65개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9월 27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괴뢰당국의 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트럼프의 도발과 망언때문에 조선반도가 전쟁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대북제재》책동에 앞장서고있는 현 당국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의 도발은 조선반도의 정화를 바라는 초불민심에 대한 유린이라고 단죄하였다.

트럼프가 남조선에 살인무기들을 강매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온다고 하면서 미국대사관을 철거하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사진에 뱅끼칠을 하며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였다.

이날 6.15남측위원회와 평화협정행동련대소속 성원들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그들은 《북완전파괴》를 웨쳐댄 트럼프의 망언은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에 《싸드》배치철회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마약밀반입행위 성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마약밀반입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여당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미제침략군은 식료품상자에 마약을 넣어 군사우편을 통해 반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법으로 마약을 지속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적발된 마약량만 해도 27만명이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것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드러난 마약반입량을 모두 합친것의 몇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반입된 마약들이 미군기지뿐아니라 남조선사회에도 류포되여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전쟁조약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해낸 때로부터 64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지배야망에 사로잡힌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패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남침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괴뢰들과 함께 이 범죄적인 조약을 꾸며냈다. 지금껏 미국은 《호상방위조약》을 빌대고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면서 그곳을 북침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였으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호전적인 기도의 산물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기 바쁘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화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미국은 남조선을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고 북침전쟁책동을 합법화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괴뢰당국에 그 무슨 《호상방위》라는 간판을 내건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진》을 부르짖으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여온 리승만괴뢰도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골수에 배긴 북침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기도밑에 상전의 흉악한 계략이 깔린 조약에 서슴없이 맞도장을 눌렀다.

《호상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개시할수 있다. 이것은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무모한 침략기도가 《호상방위조약》에 그대로 도아박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내외호전광들은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발광적으로 강행하여왔으며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최근에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특히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키기서 죽는것》이라는 망발을 내뱉으며 북침전쟁광기를 부리던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는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와 《절멸》이라는 죄악의 전쟁폭언을 또다시 웨쳐댐으로써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전조선을 타고앉는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상전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괴뢰호전광들의 악랄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조약이다.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통치권을 틀어쥐고있는 미국은 군사령역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배와 간섭을 강화해왔다. 《호상방위조약》을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살인과 강탈, 폭행 등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 굴욕적인 조약에 따라 각지의 넓은 땅을 미제침략군의 기지로 제공하였으며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침략군무리에게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섬겨바치고있다. 《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희생과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하키에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교수는 《남조선은 미군에 예속된 무주권국이다. 남조선과 미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인 《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의 영토, 령해, 령공은 무조건,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미군에 양도하게 되여있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은 모든것이 미국에 장악되여있는 식민지예속국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런 사상 류례없는 매국조약을 꾸며내고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통일책동에 미쳐날뛰여온자들이 다름아닌 괴뢰통치배들이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그를 하내비로 섬기면서 민족적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반역적죄악을 저질렀다. 이자들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나는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상전의 옷섶에 매달려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각계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는데서는 《초불민심을 반영》한다고 광고하는 현 남조선당국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등을 돌리고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어대며 반공화국대결에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괴뢰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미국상전의 요구대로 《싸드》발사대추가배치를 강행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의 정례배치, 순환배치를 구걸하는가 하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구축한다고 고아대면서 상전으로부터 최신군사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한편 그 무슨 《초강력제재》에 대해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적극 동조해나서고있다. 심지어 온 민족이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에 격분하여 미국을 단죄하고있는데도 오히려 상전의 전쟁폭언을 적극 지지하며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서슴없이 몰아오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날로 더욱 격화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미치는 부정적후과는 실로 엄청난것이다. 이 조약은 존재해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의 철페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과 의지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을 지체없이 철페시키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리 성 호

괴뢰보수패당의 언론장악책동을 조사할것을 주장

보도에 의하면 9월 26일 남조선의 23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보수패당의 언론장악책동을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언론전반에 대한 정보원의 추악한 언론장악음모가 계속 드러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지난 11일 정보원이 리명박 《정권》시기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의 존재와 방송개입을 인정한 사실, 2010년에 작성한 《MBC정상화전략 및 추진방안》과 《KBS조직개편이후 인적쇄신추진방안》 등이 대표적실례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시기 정보원이 벌린 모든 언론장악책동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되여야 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괴뢰군사병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9월 26일 남조선강원도 철원군에 주둔한 괴뢰군부대에서 사병이 총에 맞아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병은 진지공사에 내몰렸다가 실수하면 도중 총탄에 맞아죽었다.

당시 주변에 있는 괴뢰군부대 사격장에서는 호전광들이 북침을 노린 실탄사격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었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로조원들 괴뢰당국의 임금삭감책동에 항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학교비정규직로조가 9월 26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당국의 임금삭감책동에 항의하였다.

발언자들은 당국이 로조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고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안을 내리먹이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때문에 지난 8월에 시작되여 7차에 걸친 관련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더우기 현 집권자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 학교비정규직문제를 1호로 처리하겠다던 공약들을 리행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각도의 교육감들도 비정규직로조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비정규직로조성원들이 항거의 표시로 임금인상을 위한 삭발투쟁을 단행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로조의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더이상 양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현 집권자와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힘의 균형보장은 평화수호의 현실적방도

미국이 변함없이 추구하는것이 있다.

바로 힘의 우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힘으로 누르기 위해 군비증강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힘의 불균형상태가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곧 지배와 간섭, 전쟁을 불아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세계전쟁사는 힘이 우세한 지배주의국가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한 력사이다. 때문에 힘이 약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전을 지켜낼수 없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힘이 대등한 나라들에 한해서는 함부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자칫하다가는 저들의 멸망을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다.

핵보유국들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에 미국은 첫 핵시험을 하고 핵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하여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 렬강들간의 전략적인 힘의 균형은 심히 파괴되었다.

미국은 기고만장하여 세계를 제패하려고 망상하였다. 쏘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고 핵무기로 초토화하려는 작전계획들을 은밀히 작성하였다.

미국의 핵독점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자기 안전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한 쏘련은 힘의 렬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몇해만에 쏘련이 원자탄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을 깨버렸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핵보유국의 대렬에 들어섰다. 핵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도 핵보유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핵독점야망이 파탄되자 미국은 핵우세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핵무기현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앞에서는 《핵축감》을 떠들어대면서 뒤에서는 림계전핵시험을 비롯하여 각이한 핵시험들을 끊임없이 강행하며 신형핵무기개발에 발광해왔다.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보유한 미국은 힘이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 핵위협공갈과 침략전쟁을 로골적으로 일삼아왔다. 돌이켜보면 미국에 의해 참혹한 전란을 겪은 나라들은 례외없이 미국에 비해 군사적힘이 약한 나라들, 핵이 없는 나라들이였다.

1990년대에 벌어진 만전쟁과 발칸전쟁,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전쟁과 2003년의 이라크전쟁 등은 미국이 힘이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 벌린 전쟁들이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진횡에 의해 강요된 류혈참극들은 원쑤들과 맞서싸울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힘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침발린 《선의》에 어리석게도 미련을 가지고 그의 압력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국권을 잃고 나라전체가 내란의 수라장으로 전변된 리비아의 비극적참상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날뛰는 미제가 존재하는 한 자위적억제력을 스스로 내놓는것은 곧 죽음이라는 피의 교훈을 뼈속깊이 새겨주고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핵보유를 제때에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들었을것이다.

지난해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익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있다고 밝혔다.

실지 지역에서 미국의 힘은 날로 쇠약해지고있다. 반면에 미국이 적수로 여기는 나라들의 힘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아시아지배를 노리는 미국에 있어서 불만족한 사실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그 어느때보다도 광분하고있다.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이 지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다.

1차적인 공격목표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이다. 핵위협공갈을 끊임없이 일삼으며 우리 국가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책동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각성분발케 하고있다. 올해에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비롯하여 각이한 탄도로케트들의 시험발사 및 발사훈련,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한것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제압분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침략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선제이라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공화국이 자력자강으로 마련한 핵억제력은 더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이제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세력균형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아 조선반도를 코두보로 삼고 유라시아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키버쥐려는 미국의 흉계는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해 파절당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몇해 안되는 사이에 수소탄과 전략잠수함 탄도탄,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군사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 모든것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굳센 신념과 드센 배짱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미국의 힘자랑질은 우리 공화국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련속 들이밀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그러나 감히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고있다. 우리 국가가 강력한 힘으로 미국의 핵전쟁광증을 억제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세계는 우리 공화국이 어떻게 폭제의 핵을 마스고 평화를 수호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 승 철

조선은 불패의 강국

여러 나라 신문들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9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걸쳐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는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라고 하면서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일떠세우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나라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도록 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이라는 표제밑에 《조선의 위력》 등 제목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실었다.

조선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 빗나가군 하는것은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잘 모르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자막대기로 조선을 재보려는데 오유의 근본원인이 있다.

조선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그대로 인민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하여 온갖 사회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개하였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대해지고있다.

세계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 조선의 모습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근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고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조선의 또 하나의 위력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미국의 무모한 핵공갈을 영원히 끝장내고 인민의 무궁번영할 래일을 담보하시기 위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조선의 또 다른 하나의 위력은 자강력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조선의 위력은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에질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하고있는 조선, 그 승리의 법칙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는것이다.

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계승되고있다.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것은 정당한 자위적조치

네팔, 인도네시아인사 담화 발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네팔, 인도네시아인사가 9월 7일과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쑹코리 바로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얼마전 조선이 진행한 수소탄시험이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다.

이에 기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더욱 발악하고있으나 패배만을 거듭하고있다.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것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강화를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공화국에 대한 위협소동을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쁘레스회사 사장 한쭝 위리안 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조선의 막강한 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성공으로 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보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핵무기는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단호히 맞서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서아프리카의 첫 독립국가—기네

기네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부 대서양연안에 위치하고있는 나라이다. 184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세기말에 이르러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침략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기네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1900년대에 들어와 반프랑스투쟁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여 식민주의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되는 기네의 독립은 지역에서 프랑스식민지체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오늘 기네는 사회에 남아있는 식민지잔재를 없애고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서아프리카의 보물고로 불리우는 이 나라는 보크사이트, 철광석, 망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있다. 특히 품위가 높은 쇠돌과 무진장한 보크사이트는 기네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그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보크사이트생산을 위주로 하는 채취공업이 농업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기네는 서아프리카에서 농업이 비교적 발전된 나라로 알려져있다.

기네정부는 종족이나 지방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있다. 이것은 20여개의 종족들이 살고있는 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한 정책이다.

기네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친선협조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기네국경절 59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무모한 망동으로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해 미국은 심사숙고하라

민주몽고에서 집회 진행, 성명 발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를 떠벌인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을 규탄하는 집회가 9월 24일 민주몽고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민주몽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민주몽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유엔총회연탁에서 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전세계를 경악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인 유엔에서 평화적인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피멸시키겠다고 한 미국대통령의 반인륜적인 폭언은 호전광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이것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조선의 자위적조치들이 천백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발언은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하였다.

한 주권국가를 《불량배국가》라고 터무니없이 몰아대는 철면피한 미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공동체의 국가수반들이 조선반도문제를 주권국가의 경제를 질식시키고 제도를 전복하는 범죄적이며 반인륜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유엔헌장과 국제적정의에 부합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위적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인도네시아인사들 강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파괴》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선전포고를 한 미국집권자의 히스테리적망언을 규탄하여 인도네시아인사들이 9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안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쁘레스회사 사장 한쭝 위리안또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초보적인 외교적관례도 모르는 트럼프의 망발은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분노를 자아냈다.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에서 한 트럼프의 폭력적인 언사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선전포고로밖에 탈리는 볼수 없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압살책동으로 하여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언론들의 반향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기상앞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국의 가련한 처지는 지금 세계언론들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민주몽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본토의 임의의 지역을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여도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정객들이 두려워하는것은 단지 《화성-14》형이 미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고있기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야말로 미국을 가장 확실하게 타격할수 있는 의지를 지닌 나라이기때문이다.

나이제리아 킴일성-킴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아직도 미국은 힘만 있으면 그 어느 나라나 짓뭉개고 굴복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오산하고있다.

조선은 수십년간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극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은 자기를 건드리는자는 행성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징벌할수 있는 전략로케트보유국 및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또다시 도발을 가한다면 핵사상 외부로부터 폭탄 한발 떨어져본적이 없다는 미국이 불바다에 처할수 있다.

미국의 힘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조선의 보통강반에는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여있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에 함선을 나포할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강사는 그것이 바로 조선의 전투방식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여있는 비행기, 땅크 등 잔해들은 미국이 조선과의 대결에서 결코 승리자가 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썼다.

몽고통신사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해부터 조선은 핵대결전에서 련속 통장훈을 부르며 미국을 걷잡을수 없는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2016년 1월 첫 수소탄시험완전성공으로부터 올해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들을 비롯하여 국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련속강타에 미국은 당황망조하여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미핵대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반미성토장으로 화한 유엔무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 9월 12일 유엔본부에서는 유엔총회 제72차 회의가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90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은 이번 회의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등 국제적의무에 충실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회의호를은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광태로 하여 시작부터 그에 배치되게 흘렀다.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연설이랍시고 내뱉은 트럼프의 망발은 각국의 대표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극도의 오만상에 사로잡힌 트럼프는 연설시작부터 목에 피대를 세우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상대로 갖은 험담과 비난을 마구 쏟아냈다.

트럼프는 우리 나라에 대해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댔는가 하면 이란을 《부패한 독재국가》, 《살인정권》으로 보사하면서 이 나라가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테로를 지원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란핵합의가 미국에 있어서 《골치거리》라고 보사하면서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독재국가》로 마구 헐뜯으면서 얼토당토않은 잡소리들을 제쳐대기도 하였다.

그의 광언을 들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고위외교인물들은 도대체 트럼프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옳긴 옳은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도그럴것이 트럼프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면 나머지 힘에 의한 세계지배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기때문이다.

유엔무대는 정신이상에 걸려 주권국가들을 함부로 헐뜯은 트럼프를 규탄하는 성토장으로 화하였다.

짐바브웨대통령 무가베는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망발을 들고 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하면서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트럼프에게 주권국가의 《절멸》과 같은 천박하고 위협적인 고함을 지를것이 아니라 민족자결과 평화를 도모하고 세계에 단합과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아름다운 트럼베트》를 연주할것을 권고한다고 야유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연설을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한 만록한 내정간섭으로 규탄하면서 트럼프는 1980년대 랭전시기에로 되돌아가고있는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세계에는 제국주의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으니 미국은 모든 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해보려는 침략기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은 무지하고 악의에 찬것으로서 허위정보와 무근거한 주장들로 가득차있다고 단죄하였다.

꾸바외무상도 2 500만명의 사람들이 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위협적인 망발을 전면배격한다고 하면서 전쟁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국들에 사는 수억명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7 000억US$의 군비를 지출할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무력사용위협과 침략적인 핵군사교리추진책동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유엔본부가 자리잡고있는 미국 뉴욕의 여러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트럼프가 유엔에서 나라를 대표하여 연설한다는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 그는 람욕과 무지, 증오 등 이 나라의 가장 나쁜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웨치며 반트럼프열기를 고조시켰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불량배국가》로 지정한 트럼프를 21세기의 히틀러로 보사하면서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집회를 조직하였다.

트럼프가 광태를 부린 사실이 온 세계에 공개되자 곳곳에서 초보적인 외교례절도 지킬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근육과시》밖에 모르는 무지한 쌍패두목, 유엔무대를 살벌하게 만든 불망나니라는 혹평이 쏟아져나왔다.

많은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은 트럼프는 선임자들보다 더한 정책 다시말하여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워싱톤의 힘의 시위는 침략적,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할만 한 힘이 미국에 없다는것을 어실히 폭로해주고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평하고있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일삼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 파괴하는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매장되여야 할 악적존재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

일본이 미국의 하수인으로서의 가련한 모습을 또 한번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얼마전 미군은 일본의 오끼나와현 카데나미공군기지에서 락하훈련을 진행하였다. 현지주민들과 자치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나선것은 물론 오끼나와현이 이를 중지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미군의 락하훈련은 1996년에 있은 미일사이의 합의에 따라 오끼나와현의 이에심보조비행장에서만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군은 이것을 무시하고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 락하훈련을 또다시 강행하였다. 이곳에서의 미군의 락하훈련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4월과 5월에 이어 3번째라고 한다.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의 락하훈련은 《례외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있다.

주일미군은 바로 이 《례외적인 경우》라는것을 력대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지난 시기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락하훈련으로 말미암아 오끼나와에서는 미군병사들과 불자들이 민간지역에 떨어져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언제인가는 락하산에 매단 운수기재가 떨어져 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빚어진적이 있었다.

일본당국이 여러차례나 훈련중지를 요구해나섰으나 미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은 《일미 두 나라 정부가 이미 합의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락하훈련을 이곳에서도 할수 있다는 성명까지 발표하여 일본당국자들을 아연케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끼나와현 지사는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개함을 금할수 없다. 제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데나에서 락하훈련을 계속 강행하려는 미군의 파렴치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키지 못하는것이 일본의 가련한 처지이다. 정부는 중지요구나 하는것으로 그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일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하수인의 관계이다.

실든좋든 상전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게 되여있는것이 일본에 차례진 숙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미군의 군사기지로 떠맡겼다.

현재 주일미군의 70%이상이 오끼나와섬에 배치되여있다. 미군은 이곳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현지주민들의 안전문제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 말이 일본인들이 주인이지 진짜주인행세를 하며 활개치는것은 미군이다.

미군병사들은 이곳에서 살인, 략탈, 강간, 파괴 등 각종 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더우기 미군의 끊임없는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이곳 주민들은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다. 특히 때없이 계속되는 군용기들의 리착륙소음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미군에 의한 각종 사고들은 기지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매시각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사고가 잦은 미해병대의 수직리착륙수송기 《오스프레이》의 비행으로 하여 헌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되고있다. 지난 8월에 오스트랄리아 앞바다에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소속 《오스프레이》가 추락사고를 일으켜 바다물속에 처박히자 현주민들은 모두가 가슴이 서늘해하였다.

일본의 민심은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주일미군기지를 하루빨리 철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상전의 요구를 지역하다가는 눈밖에 날수 있다고 타산한 일본정객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고통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그토록 말썽많은 후덴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공사도 저들이 전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고있다.

미국을 등에 업어야 날로 부풀어오르는 저들의 군국화,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하기때문이다. 국민들의 고통이야 어떻든 관계치 않고 저들의 모든것을 섬겨바치고있는 일본정객들이야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대미굴종에 썩든자들이다.

주대가 없이 상전에게 매여사는 하수인의 신세는 바로 이렇다.

제 나라 땅에서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처신하는 가련한 일본당국의 추태는 세상사람들의 조소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저주의 대상-정치망나니

미국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여러 주권국가들을 미친개 짖어대듯이 마구 헐뜯어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많은 나라들에서 트럼프가 정치인이라기보다 쌍패두목, 정치망나니, 파쑈독군이라는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트럼프는 국내에서도 사람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계속 늘어놓아 각계층 미국인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이달에 개막되는 미국 NBA(전국롱구협회)련맹전을 앞두고 각 팀들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선수들이 트럼프에 대한 비평을 늘어놓았다.

체육계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그에 성이 독같이 난 트럼프가 미친개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며 또 험담을 늘어놓았기때문이다.

NBA 이전 선수 마이클 조단은 어느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정화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정면에서 공격해나섰다. 어느 한 팀에서 흑인선수들의 기둥으로 되고있는 한 미국인은 체육계에 폭언을 한 트럼프를 로골적으로 비판하였다. 다른 선수도 《트럼프의 발언은 무례하다.》라고 말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트럼프는 상대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광태를 부리고있다. 이런 미치광이가 대통령을 해먹고있는 미국에서 국사가 잘될리 없다. 온통 뒤죽박죽이다.

행정부내에서는 퇴임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미련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를 비롯하여 측근들이 백악관을 떠나갔다. 미국력사에 행정부가 발족된지 몇달도 안되여 대통령측근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떨어져나간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주민관련행정명령발표, 빠리협정에서의 탈퇴선언 등 그릇된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내에서는 각계층의 불만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미국내에서 혼란이 심화되자 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도 《트럼프는 복수심이 강하고 자제력이 없으며 안목이 좁다.》고 혹평하였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한 후 미국에서 국사가 혼랑되고 사회분렬이 날로 커가고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고립이 촉진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ㄱ-71155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